

## 자가간호향상을 위한 제왕절개산모의 가정간호 효과\*

장 순 복\*\* · 이 선 경\*\*\*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제왕절개 분만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포괄수가제 지불방식을 도입하면서 초기에 채택된 가정간호사업의 대상으로 제시한 다섯 가지 상병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제왕절개분만의 시행율은 불과 10년만에 3배 이상 증가되어 전체 분만 건수 중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에 14.9%에서 1998년에는 38.0%, 2000년에는 전국적으로 37.7%로 증가되고, 3차 진료기관의 경우에는 분만방법의 43.0%까지도 차지하는 실정이다(김승권, 2000). 과거에는 제왕절개 산모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기관이 극소수였지만 포괄수가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제 1차 병원중심 가정간호 시범사업 평가에서 가정간호를 제공하는 수술로 제왕절개술이 전체의 39.7%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다(박정환, 1999; 황나미, 1996). 따라서 제왕절개 산모는 가정간호 사업의 우선적인 대상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왕절개분만 후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경우 6-7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으나, 최근 외국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2일째 퇴원을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이 보고되었다(Williams & Cooper,

1993; Keppler, 199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평균 4.5일 정도에 조기퇴원을 시킨 경우에 수술 상처회복이나 감염 등이 거의 문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경숙, 1994; 황나미, 1996). 결과적으로 제왕절개술은 조기퇴원이 가능한 상병임이 입증되고 있다. 오히려 조기퇴원한 산모들의 경우 신생아와 형제들과의 분리 감소, 산모의 가족유대 증가에 따른 가족일상사의 재확립, 감염발생 감소, 익숙한 환경인 가정에서의 정서적 안정, 그리고 병원비 감소의 장점이 있어(전은미, 1993), 제왕절개 산모의 가정간호에 대한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왕절개 산모의 가정간호 서비스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국가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가정간호수가의 적용대상은 제왕절개 부위의 봉합사 제거와 감염이나 제반 합병증상 관찰에 국한되고 있다. 이는 산모의 신체적 건강에만 초점을 둔 제한적인 건강관리 방식으로서 산모자신이 회복되는 동안에 생리적 적응을 위한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산모 본연의 존재 이유가 되는 신생아를 돌보는 주체자로서 능동적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획득해야 한다는 포괄적 건강관리의 관점이 무시된 결과이다.

가정간호를 전담해야 하는 간호사의 입장에서 산모 간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모로 하여금 자가간호능력을 획득하도록 돕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모아체계의 균형과

\* 본연구는 한국과학재단 핵심전문연구(981-0715-113-1)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가정간호연구소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안정성을 유지하여 원만한 모아상호작용을 증진하도록 하는 것이다(최연순, 1999). 그러나 산모는 신생아와 함께 가정에 돌아간 후 기대했었던 바 보다 현저하게 어려운 경험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들 자신과 신생아 관리에 대해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있는 사실이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장순복, 1999; Gruis, 1977; Rubin, 1975; Yankauer & Aifred, 1960). 이는 퇴원 후 가정에서 그들의 요구와 관심을 해결해 줄 적절한 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산모의 자가 간호 능력이 부족하면 상처의 합병증, 산후감염, 산후회복의 지연, 모아 애착의 결핍과 신생아의 생리적 불균형, 감염, 발달지연, 유대부족 등이 초래되는 부정적인 건강결과를 겪게 된다. 그러므로 가정간호는 산모의 발달과업 달성을 위해 산욕 기간에 있는 산모자신을 돌보는 자가간호 능력과 신생아를 돌보는 자가간호 능력이 동시에 획득되도록 그 내용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가정간호에서 제공되어야 할 산모의 포괄적 자가 관리 내용으로 전통적으로 가정간호사의 주요 업무로서 인식하여 시행하고 있던 봉합사 제거 이외에 상처관리, 위생관리, 신생아의 수유, 오로관리 등 자신의 신체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과 더불어 신생아 영역의 목욕, 배꼽관리, 배설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획득교육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장순복(1998)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 산모들이 표출한 자가 간호의 요구 중 가장 우선적인 사항으로서 산모들의 자가간호 내용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들은 실험적으로 포괄하여 제공하고 사후의 효과 평가 역시 이 두 차원에서 자가간호능력으로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가정간호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전은미(1993)는 사례연구를 통해 가정간호를 제공받은 산모와 신생아의 간호문제와 활동내용을 파악함으로써 가정간호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만을 주었고, 박경숙(1994)은 제왕절개술을 시행받고 조기퇴원한 군에게 가정간호를 제공한 후의 효과를 산모자신의 합병증 발생, 일상활동 능력, 생리적 회복, 만족정도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였으나, 산모자신의 관리능력과 어머니로서의 중요한 역할인 신생아 돌보기 관련 자가간호능력에 대한 평가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가간호 향상을 위한 제왕절개 산모의 가정간호 효과는 어떠한가? 라는 연구문제를 제기하고 제왕절개 산모 가정간호 효과로서 산모 영역의 자가간호와 신생아 돌보기 영역의 자

가간호를 검정할 필요성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검정결과를 통하여 제왕절개 산모 가정간호에 산모자신과 신생아를 위한 자가간호능력 향상 내용을 포괄해야 할 근거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용어 정의

### 1) 가정간호

가정간호란 질병예방, 건강유지, 증진 및 회복과 함께 질병의 후유증이나 불구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이 생활하는 장소에서 전문간호사에 의해 제공되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말하며(전은미, 1993), 본 연구에서는 제왕절개 분만 후 수술부위에 봉합사를 제거하지 않고 퇴원한 산모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봉합사 제거와 전신상태 관찰을 약 20분간 수행하고, 아기목욕, 배꼽관리, 아기배설관리, 복부상처관리, 수유관리, 위생관리, 오로관리, 한냉관리, 영양관리 등을 직접 시범과 설명을 포함한 교육을 평균 30분간 제공하여 총 50분간 제공된 행위를 총칭한다.

### 2) 자가간호

개인이 각자가 자신의 삶, 건강, 안녕을 위해 정상기능을 유지, 증진시키고 질병과 상해를 예방 또는 조절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상생활 활동의 실제(Orem, 1985)로서, 본 연구에서는 제왕절개를 한 산모가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산모관련 영역의 복부상처관리, 수유관리, 위생관리, 오로관리, 한냉관리 및 영양관리에 관한 자신감 정도의 측정치와 신생아관련 영역의 아기목욕, 배꼽관리, 배설관리에 관한 자신감정도의 측정치의 합을 말한다.

## 3. 연구가설

연구가설은 "자가간호향상을 위한 가정간호를 제공받은 조기퇴원군 제왕절개산모의 자가간호 능력정도는 정상퇴원군 제왕절개산모의 자가간호 능력정도보다 높을 것이다"로 설정하였다.

##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실험군 대조군의 편의추출이었고 외생변수 통제가 부분적이었으므로 history 개입여부를 설명할 수

는 없다.

## II. 문헌 고찰

### 1. 제왕절개 산모의 가정간호

지난 20여 년간 놀라울 정도로 제왕절개술 분만률이 증가되어 미국의 경우 1970년대에 5.5%였던 것이 1990년에는 전체분만의 10-4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통계에 의하면 불과 10년만에 3배 이상 증가되어서 전체 분만의 3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심지어 어느 병원의 경우 전체분만의 70%나 되는 사례도 있으나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암, 1998; 박정환, 1999).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는 산후 감염 등의 합병증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통 수술 후 7-8일까지 병원에 입원을 해 왔으나, 미국의 경우 제왕절개 산모에 대한 병원진료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자원의 적절한 분배와 사용을 도모하고자 하여 DRG(Diagnosis Related Group)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서 조기퇴원과 가정간호 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입원기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결과(Griffith, 1984), 실제로 제왕절개술 후 2일째 퇴원을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Keppler, 1995; Williams & Cooper, 1993). 근래에 이르러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필요성 증가와 병원진료비용 절감을 위한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제왕절개 산모의 적절한 병원입원기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적 특성이나 병원 특수성에 따라 제왕절개 산모의 입원기간이 현저히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경희와 장금성(1998)의 제왕절개산모의 임상실무경로(Critical Pathway)를 개발한 연구에서 제왕절개 산모의 평균 재원일수는 7.5일이었고, 김모임, 김의숙, 유호신, 추수경, 이규식과 이종길(1993)의 연구에서는 일 종합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받은 환자군의 실제 평균 입원기간이 8.8일이었는데, 그 범위는 7-14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박경숙(1994)의 연구에 따르면 제왕절개술 후 4일째에 조기퇴원을 한 경우에 산후회복 정도나 합병증 발생정도가 정상퇴원 군과 차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간호에 대한 만족도가 오히려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조기퇴원이 가능한 상병입이 입증되었다.

제왕절개산모를 조기퇴원 시키고 가정간호를 제공할 경우 장점은 형제들과의 분리감소, 가족유대증가에 따른 빠른 가족일상의 재확립, 병원감염 발생율의 감소, 친밀한 환경인 가정에서의 정서적·심리적 안정, 입원기간 감소로 인한 비용감소, 실제 아기를 돌보는 상황에서 산모와 신생아 간호에 관련된 자가간호 기술의 습득을 도모함으로써 어머니로서의 자신감 증가(전은미, 1993; 황보선, 1996), 모아분리로 인해 모유수유의 어려움과 유방울혈이 가중되었던 병원 환경과는 달리 가정에서 모아가 함께 거주하는 환경에서 안정된 수유를 함으로서 유방울혈로 인한 통증과 불편감 감소, 모유수유 증진의 효과, 모아애착과 모아 상호작용 증진의 효과 등이며 결과적으로 가정간호를 통해서 가족의 결속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전은미, 1993).

최연순, 김대현, 서미혜, 김조자와 강규숙(1992)은 원주시내 Y대학 부속병원에서 대상자 163명을 대상으로 한 퇴원환자의 가정간호요구와 가정간호사업의 효과분석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건강기능 양상별 간호요구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일상생활 활동능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고, 이규식(1993)은 1986년 5월부터 1989년 8월말까지 Y병원 보건 간호과에 의뢰된 가정간호 대상자와 통원치료 대상자의 의료비용을 분석한 결과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에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박경숙(1994)은 제왕절개술 산모의 가정간호 효과와 비용을 분석한 연구에서 신체, 생리회복상태와 합병증 발생정도가 가정간호를 제공받은 군과 제공받지 못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가정간호를 제공받은 군에서 간호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입원비용은 감소함으로써 가정간호의 효율성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가정간호 1차 시범사업이 끝난 후 제왕절개산모가 가장 많았던 〇의료를 대상으로 가정간호 서비스내용과 서비스 내용별 지불비용을 산출하여 비용분석을 한 결과 가정간호를 제공받은 군에서 총 진료비, 보험급여액, 본인부담금 등이 모두 낮게 산출되어 결과적으로 가정간호시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황나미, 1996). 또한 미국의 1991년 자료에 따르면 건강한 산모와 신생아는 제왕절개분만 후 2-3일째 되는 날 퇴원하며, 이들에게 가정간호를 제공했을 때 환자와 가족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비용절감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Williams & Cooper, 1993; Keppler, 1995).

그러나 재원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제왕절개 산모의 자

가간호 능력 획득을 위한 교육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됨으로 인해(황보수자, 1999), 이러한 준비되지 않는 조기퇴원한 산모들이 가정일과 아기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가족구성원과 산모의 휴식을 저하시키며 합병증의 가능성을 증가시켜 재 입원율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전은미, 1993). 따라서 조기퇴원시 병원에서의 산모간호가 일찍 종결되므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합병증을 예방하고 산모자신과 신생아를 스스로 돌볼 수 있으려면 효율적인 자가간호 교육을 포함한 가정간호를 통한 제왕절개 산모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 2. 제왕절개 산모의 자가간호

자가간호는 건강관리자가 직접 수행한다기 보다는 대상자가 스스로 하는 일차 건강관리의 일부로서 중요시된다(Weiss, 1995). 그러므로 현대간호는 대상자가 스스로 자가간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가 자가간호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Winslow, 1976). 자가간호란 기관의 간호나 치료에만 의존하여 건강문제를 해결하며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할 수 있었던 전통적인 사고와 행위로부터 전폭적인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이다. 자가간호행위란 자신의 건강에 책임을 지는 행위로서 주로 총체적 건강관리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안녕 중심적인 예방 행위를 말한다. 자가간호교육은 대상자들이 자신의 건강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도록 돕는 것으로서 교육목표는 대상자들이 요구하고 선호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Hill & Smith, 1985).

건강관리 상황에서 자가간호는 당뇨, 뇌졸중, 만성폐색성 폐질환자, 정신질환 등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제공되어 왔다(Toobert, Hampson, & Glasgow, 2000; Bennett, Cordes, Westmoreland, Castro, & Donnelly, 2000; Holmberg & Kane, 1999; Shakur & Higham, 1998). 그 이유는 자가간호의 개념자체가 만성질환자들이 스스로 관리해야 할 속성과 내용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제왕절개 산모인 경우에는 만성질환자와는 달리 건강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의 변화단계에서 병리적인 상태로 변화되기 쉽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신혜숙 외,

2000),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보호 증진해야 하는 대상으로서 자가간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Amstrong, 1989).

Mattson & Smith(1992)는 산모의 자가간호 교육 내용으로 위생관리, 회음관리, 운동, 영양, 유방관리, 신생아 특성 이해, 신생아 행동특성, 신생아 돌보기, 신생아 달래기 등을 포함하였다. 최연순 외(1999)는 산후 1주일 후 가정간호로 휴식도모, 신체적 회복, 신생아 돌보기, 신생아 특성이해, 신생아와 관계수립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황보수자(1999)는 조기퇴원한 제왕절개 산모를 위한 가정간호 표준서를 개발하면서 불안감소, 신생아 간호, 애착증진, 모유수유, 인공수유, 감염예방, 산후간호건강교육, 환경관리, 영양관리, 통증관리, 투약, 부모교육, 부모역할 강화, 피부간호, 배변관리, 신체이미지 강화, 이완요법 등 19가지 중재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산후조리원에 있는 산모들은 분만한 이후 퇴원하여 기거하고 있는 가정대체 장소로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동안 간호요구로 젖먹이를 풀기와 젖짜기, 회음절개부위 소독, 좌욕, 몸의 청결, 산욕제조, 충분한 휴식과 수면, 아기와의 접촉, 정보제공, 성생활 상담, 피임교육, 육아교육, 청결관리, 습도, 온도유지 방법, 신생아 배꼽관리, 신생아 감염관리, 신생아 목욕, 신생아 정서적 안정 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정 현, 1999).

김혜숙, 최연순과 전은미(1994)는 제왕절개분만 산모와 신생아의 가정간호 요구 내용으로 감염가능성, 모유수유관련 문제, 신생아 관리에 대한 지식제공, 수술상처관리, 신생아 제대관리, 신생아 황달 및 질병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들었는데, 이는 안정된 가정환경 속에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스스로 자가간호 할 수 있도록 도울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하였다. 전은미(1993)는 제왕절개산모의 주된 문제점인 부적절한 유방간호와 모유수유, 지식부족, 수면장애, 식욕부진, 신생아 제대 분비물, 수술부위 분비물 등에 대한 가정간호요구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할 가정간호 서비스의 우선적인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산후 6개월간 산모의 간호요구 내용 조사결과에서는 산모영역에서 위생관리, 질 분비물 변화, 한냉노출, 산후영양, 산후운동, 성생활, 피임방법 등이었고, 신생아 영역에서는 신생아 성격, 배변양상, 수면양상, 제대관리, 신생아 행위 의미, 예방접종, 울음특성 등에 대한 간호요구가 있었는데, 특히 산후 일주일 이내에

는 산모영역의 복부상처관리, 위생관리, 오로관리, 한냉관리, 수유관리, 영양관리와 신생아 영역의 배변양상, 제대관리, 아기목욕, 울음의 특성 등에 대한 간호요구가 높았다(장순복, 최연순, 박소미, 박정숙, 김은숙, 1999). Chu & Teng(1997)의 연구에서도 산모들은 이와 관련된 자가간호 자신감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적극적 학습요구가 있으며 돌봄의 방식에 대한 적용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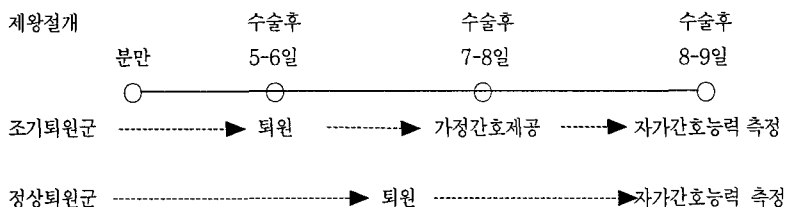
사실상 제왕절개 산모의 자가간호요구나 능력은 연구에 따라 출산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다 혹은 없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임신경험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음이 설명되어(정영희, 1984; 이은숙, 1986) 초·경산모 모두를 대상으로 자가간호 향상을 위한 가정간호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대체로 제왕절개산모의 가정간호의 효과평가에 대한 연구가 주로 산모의 신체적 회복이나 합병증 유무정도, 의료수가 및 비용절감의 측면에서만 이뤄졌으며, 산모의 신체적 회복상태와 관련된 결과만을 설명하였으므로(박경숙, 1994), 산모 자신의 신체적 문제에 대한 자가간호와 더불어 신생아 돌보기가 포함된 가정간호와 그 두 차원에 대한 가정간호의 효과 검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유사실험연구로서 연구를 위하여 제왕절개 수술 후 조기퇴원한 산모에게 자가간호 향상을 위한 가정간호를 제공한 후 산모의 자가간호 능력정도를 정상퇴원한 산모와 비교함으로써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 시차설계를 하였고 본 연구의 설계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설계모형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1998년 12월 20일에서 6월 10일까지 서울시내의 S의료원에 입원하여 제왕절개술을 받은 산모를 대상으로 임의추출법을 사용하여 조기퇴원(5-6일)한 산모 15명과 정상퇴원한 산모 41명, 총 5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
- 2) 임신과 분만과정에 합병증이 없는 자.
- 3) 재태기간 36주 이후에 출산한 자.
- 4) 2.5kg이상의 건강한 신생아를 분만한 자이다.

#### 3. 연구도구

##### 1) 제왕절개 산모의 가정간호

실험처치인 조기퇴원한 제왕절개 산모의 가정간호는 산모 자신에 관한 자가간호인 봉합사 제거 및 전신상태 관찰, 유방관리, 복부상처관리, 위생관리, 오로관리, 한냉관리 및 영양관리 등의 교육과 신생아 돌보기 영역으로서의 자가간호 영역으로 아기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관리, 수유교육으로 구성되었고 평균 소요시간은 처치에 약 20분, 교육에 약 30분으로 총 50분이었다.

##### 2) 제왕절개 산모의 자가간호 측정도구

본 연구팀의 이전 연구 도출된 산후 가정간호요구(장순복 등, 1999)를 바탕으로 구성된 10개 관리영역의 25개 문항(Cronbach's  $\alpha = .79$ ) 중 산모의 자가간호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산모자신의 자가간호와 신생아 돌보기로서의 자가간호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도구는 일반적 사항 16문항과 산모의 자가간호의 5개 영역의 복부상처관리에 관한 3 문항, 위생관리에 관한 4 문항, 오로관리에 관한 2 문항, 한냉관리에 관한 2 문항, 영양관리에 관한 2 문항과 신생아 돌보기

영역의 자가간호능력의 4개 영역의 수유에 관한 5개 문항, 아기목욕에 관한 4개 문항 배꼽관리에 관한 1개 문항 등 총 9개 영역의 26 개 문항으로, 문항별로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최고 104점과 최저 26점의 점수가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제왕절개 산모가 자가간호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4. 자료수집 절차 및 방법

본 연구는 연구대상기관에서 연구의 목적과 진행절차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진행에 대한 허락과 협조를 얻었다. 그 후 중재효과의 확산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1998년 12월 20일에서 1999년 1월 15일 사이에 대조군(7-8일)을 먼저 자료 수집하였다. 대조군은 이 시기 동안에 제왕절개분만을 한 70명중에서 연구참여에 동의한 41명의 산모에게 병원에서 정상퇴원 후 1-2일에 전화로 자가간호능력을 확인하고 즉시 전화상담서비스를 보상으로 제공하였다.

가정간호사업소와 연계하여 가정간호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고, 그 후 실험군의 선정을 위해서 1999년 4월부터 6월까지 제왕절개분만을 한 산모들에게 분만실과 산부인과병동에서 가정간호 홍보를 연구조원이 직접 하였다. 자의에 의해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하고 주치의에게 조기퇴원(5-6일)을 원하는 산모 16명을 5년간의 산모 간호 경력과 가정간호사 교육을 받은 후 현재 가정간호사로서 일하고 있는 전문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가정간호사에게 의뢰하여 퇴원 전에 가정간호 서비스내용과 가정방문 계획을 협의하였다. 가정간호사가 통상적으로 하는 봉합사 제거와 전신건강상태 사정을 하는 업무 이외에 산모자신과 신생아를 위한 자가간호 교육과 시범의 효율성이 연구책임자 수준으로 되기 위한 사전교육을 두 시간에 걸쳐 갖고 두 사례는 연구 책임자와 함께 방문하여 가정간호를 하면서 실험처치의 일관성을 유지할 도모하고 사례별 오차를 줄이는 노력을 하였다. 산모가 퇴원한 후 1-2일에 가정간호사가 방문하여 50-60분 간의 가정간호를 제공하였고, 그 후 1-2일에 전화로 자가간호능력을 확인하였다. 실험군 16명중에 산후조리원으로 퇴원하여 신생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대상자 1인을 제외한 15명이 본 연구의 실험군이 되었다.

총 자료수집 기간은 1999년 1월부터 6월 21일까지 소요되었고, 대조군 41명, 실험군 15명, 총 5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 5.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를 이용한 서술적 통계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조기퇴원군과 정상퇴원군의 동질성 검정을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제 특성은  $\chi^2$ -test를, 자가간호 능력정도는 조기퇴원군과 정상퇴원군에 대해 t-test를 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정상퇴원군(대조군)과 조기퇴원군(실험군)의 일반적 특성

##### 1) 산모의 특성 비교

정상퇴원군의 대상 산모는 41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32.2세이고, 교육정도는 고졸과 대졸이상이 40(97.6%)명이었다. 직업은 9(22.0%)명이 있었고, 가족형태는 8(19.5%)명이 확대가족 형태였다. 임신횟수는 평균 2.24회, 분만횟수는 평균 1.66회이고, 자녀수는 평균 1.68명으로서 쌍둥이를 분만했던 사람이 있고, 유산경험이 1회 이상이 15(36.6%)명이었다. 산전교육은 8(19.5%)명, 산후교육은 5(12.2%)명만이 받았다. 원하는 임신을 37(90.2%)명, 계획된 임신을 30(73.2%)명이 하였으며, 태교는 34(82.9%)명이 하였다. 모든 산모가 산후조력자가 있었으며, 산후 조력자로는 친정어머니가 25(61.0%)명으로서 2/3를 차지하였다(표 1).

조기퇴원군의 대상 산모는 15명이고, 평균 연령은 32.0세이며, 교육정도는 모두 고졸과, 대졸이었고, 직업은 5(33.3%)명이 있었으며, 확대가족형태는 5(33.3%)명이었다. 임신횟수는 평균 3.07회로 대조군의 임신횟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t=2.06, p \leq .05$ )가 있었다. 분만횟수는 평균 1.93회이었고, 자녀수도 평균 1.93명이었으며 유산횟수는 평균 1.13회로 8(53.3%)명의 산모가 유산경험이 있었다. 산전교육은 2(13.3%)명, 산후교육은 1(6.7%)명이 받았다. 임신을 원하는 경우는 8(53.3%)명이었고, 7(46.7%)명이 계획한 임신이었으며 태교는 10(66.7%)명이 하였다. 산후조력자가 모두 있었는데 산후조력자는 친정어머니가 5(33.3%)명이었다.

산모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증 결과, 임신횟수( $t=2.06, p \leq .05$ )와 원하는 임신 여부( $\chi^2=7.29, p \leq .05$ )를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없었다. 임신횟수는 차이가 있었으나 자가간호 경험에 영향을 미칠만한 출산횟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두

산모군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모가 있어서 42명이었고,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결과, 성별과 수유형태, 재태연령과 출생 시 몸무게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신생아의 특성 비교

정상퇴원한 산모의 신생아는 남녀쌍둥이를 분만한 산

〈표 1〉 정상퇴원군(대조군)과 조기퇴원군(실험군)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대조군 (n= 41)		실험군 (n= 15)		T or X <sup>2</sup>	p.																																																																																																																																																																																																							
		N (%)	평균±SD	N (%)	평균±SD																																																																																																																																																																																																									
연령	24세 미만	1(2.4)		1(6.7)		0.18	.86																																																																																																																																																																																																							
	25-30세	14(34.1)	32.22±3.70	5(33.4)	32.0±5.04																																																																																																																																																																																																									
	31-35세	20(48.9)		6(40.0)																																																																																																																																																																																																										
	36세이상	6(14.6)		3(20.1)																																																																																																																																																																																																										
교육정도	고졸이하	25(60.9)				8(53.3)		3.59	.31																																																																																																																																																																																																					
	대졸이상	16(39.1)		7(46.7)		직업	있음			9(22.0)		5(33.3)		0.27	.49	없음	32(78.0)		10(66.7)		등거가족	대가족	8(19.5)		5(33.3)		0.53	.30	핵가족	33(80.5)		10(66.7)		임신횟수	1	15(36.6)	2.24±1.26	0(0)	3.07±1.49	2.06*	.04	2	12(29.3)	8(53.3)	3	5(12.2)	3(20.0)	4이상	9(22.0)	4(26.7)	산과력	분만 횟수	1	20(48.8)	3(20.0)	1.93±0.59	1.44	.16	2	15(36.6)	10(66.7)	3	6(14.6)	2(13.3)	자녀수	1	20(48.8)	1.68±0.76	3(20.0)	1.93±0.59	1.29	.21	2	14(34.1)	10(66.7)	3	7(17.1)	2(13.3)	유산횟수	0	26(63.4)	0.59±0.87	7(46.7)	1.13±1.36	1.46	.16	1	7(17.1)	3(20.0)	2	7(17.1)	2(13.3)	3이상	1(2.4)	3(20.0)	산전교육	받았음	8(19.5)		2(13.3)		0.02	.71	안받았음	33(80.5)		13(86.7)		산후교육	받았음	5(12.2)		1(6.7)		0.01	1.00	안받았음	36(87.8)		14(93.3)		원하는 임신여부	원함	37(90.2)		8(53.3)		7.29*	.01	원하지 않음	4(9.8)		7(46.7)		계획된 임신여부	계획함	30(73.2)		7(46.7)		2.36	.11	계획하지 않음	11(26.8)		8(53.3)		태교여부	했음	34(82.9)		10(66.7)		0.89	.27	안했음	7(17.1)		5(33.3)		주위의 신생아 돌보기 관찰경험여부	있음	24(58.5)		9(60.0)		0.01	1.00	없음	17(41.5)		6(40.0)		첫한달동안 조력자	있음	41(100)		15(100)		0.00	1.00	산후 조력자	친정어머니	25(61.0)		5(33.3)				시어머니	5(12.2)		3(20.0)		산후조리도우미	0(0)		2(13.3)		남편	5(12.2)		1(6.7)		기타 친인척	6(14.6)
직업	있음	9(22.0)		5(33.3)			0.27	.49																																																																																																																																																																																																						
	없음	32(78.0)		10(66.7)		등거가족			대가족	8(19.5)		5(33.3)		0.53	.30	핵가족	33(80.5)		10(66.7)		임신횟수	1	15(36.6)	2.24±1.26	0(0)	3.07±1.49	2.06*	.04	2	12(29.3)	8(53.3)	3	5(12.2)		3(20.0)	4이상		9(22.0)				4(26.7)	산과력	분만 횟수	1	20(48.8)	3(20.0)	1.93±0.59	1.44	.16			2	15(36.6)	10(66.7)				3	6(14.6)	2(13.3)	자녀수	1	20(48.8)		1.68±0.76	3(20.0)		1.93±0.59				1.29	.21	2	14(34.1)	10(66.7)	3		7(17.1)	2(13.3)		유산횟수				0	26(63.4)	0.59±0.87	7(46.7)	1.13±1.36	1.46	.16	1	7(17.1)	3(20.0)	2	7(17.1)	2(13.3)	3이상	1(2.4)	3(20.0)	산전교육	받았음	8(19.5)		2(13.3)		0.02	.71	안받았음	33(80.5)		13(86.7)		산후교육	받았음	5(12.2)		1(6.7)		0.01	1.00	안받았음	36(87.8)		14(93.3)		원하는 임신여부	원함	37(90.2)		8(53.3)		7.29*	.01	원하지 않음	4(9.8)		7(46.7)		계획된 임신여부	계획함	30(73.2)		7(46.7)		2.36	.11	계획하지 않음	11(26.8)		8(53.3)		태교여부	했음	34(82.9)		10(66.7)		0.89	.27	안했음	7(17.1)		5(33.3)		주위의 신생아 돌보기 관찰경험여부	있음	24(58.5)		9(60.0)		0.01	1.00	없음	17(41.5)		6(40.0)		첫한달동안 조력자		있음	41(100)		15(100)				0.00	1.00	산후 조력자	친정어머니	25(61.0)		5(33.3)				시어머니	5(12.2)		3(20.0)		산후조리도우미	0(0)
등거가족	대가족	8(19.5)		5(33.3)			0.53	.30																																																																																																																																																																																																						
	핵가족	33(80.5)		10(66.7)		임신횟수			1	15(36.6)	2.24±1.26	0(0)	3.07±1.49	2.06*	.04	2	12(29.3)	8(53.3)	3	5(12.2)		3(20.0)	4이상		9(22.0)				4(26.7)	산과력	분만 횟수	1	20(48.8)	3(20.0)	1.93±0.59	1.44	.16	2	15(36.6)	10(66.7)	3	6(14.6)			2(13.3)	자녀수	1				20(48.8)	1.68±0.76	3(20.0)	1.93±0.59	1.29	.21	2	14(34.1)	10(66.7)	3	7(17.1)		2(13.3)	유산횟수	0		26(63.4)	0.59±0.87		7(46.7)	1.13±1.36	1.46			.16	1	7(17.1)	3(20.0)	2	7(17.1)	2(13.3)	3이상		1(2.4)	3(20.0)	산전교육	받았음	8(19.5)						2(13.3)		0.02	.71	안받았음	33(80.5)		13(86.7)		산후교육	받았음	5(12.2)		1(6.7)		0.01	1.00	안받았음	36(87.8)		14(93.3)		원하는 임신여부	원함	37(90.2)		8(53.3)		7.29*	.01	원하지 않음	4(9.8)		7(46.7)		계획된 임신여부	계획함	30(73.2)		7(46.7)		2.36	.11	계획하지 않음	11(26.8)		8(53.3)		태교여부	했음	34(82.9)		10(66.7)		0.89	.27	안했음	7(17.1)		5(33.3)		주위의 신생아 돌보기 관찰경험여부	있음	24(58.5)		9(60.0)		0.01	1.00	없음	17(41.5)		6(40.0)		첫한달동안 조력자	있음	41(100)		15(100)		0.00	1.00	산후 조력자	친정어머니	25(61.0)		5(33.3)					시어머니	5(12.2)				3(20.0)			산후조리도우미	0(0)		2(13.3)				남편	5(12.2)		1(6.7)		기타 친인척	6(14.6)
임신횟수	1	15(36.6)	2.24±1.26	0(0)	3.07±1.49		2.06*	.04																																																																																																																																																																																																						
	2	12(29.3)		8(53.3)																																																																																																																																																																																																										
	3	5(12.2)		3(20.0)																																																																																																																																																																																																										
	4이상	9(22.0)		4(26.7)																																																																																																																																																																																																										
산과력	분만 횟수	1	20(48.8)	3(20.0)	1.93±0.59	1.44	.16																																																																																																																																																																																																							
		2	15(36.6)	10(66.7)																																																																																																																																																																																																										
		3	6(14.6)	2(13.3)																																																																																																																																																																																																										
자녀수	1	20(48.8)	1.68±0.76	3(20.0)	1.93±0.59	1.29	.21																																																																																																																																																																																																							
	2	14(34.1)		10(66.7)																																																																																																																																																																																																										
	3	7(17.1)		2(13.3)																																																																																																																																																																																																										
유산횟수	0	26(63.4)	0.59±0.87	7(46.7)	1.13±1.36	1.46	.16																																																																																																																																																																																																							
	1	7(17.1)		3(20.0)																																																																																																																																																																																																										
	2	7(17.1)		2(13.3)																																																																																																																																																																																																										
	3이상	1(2.4)		3(20.0)																																																																																																																																																																																																										
산전교육	받았음	8(19.5)		2(13.3)		0.02	.71																																																																																																																																																																																																							
	안받았음	33(80.5)		13(86.7)				산후교육	받았음	5(12.2)		1(6.7)		0.01	1.00	안받았음	36(87.8)		14(93.3)		원하는 임신여부	원함	37(90.2)		8(53.3)		7.29*	.01	원하지 않음	4(9.8)		7(46.7)		계획된 임신여부	계획함	30(73.2)		7(46.7)		2.36	.11	계획하지 않음	11(26.8)		8(53.3)		태교여부	했음	34(82.9)		10(66.7)		0.89	.27	안했음	7(17.1)		5(33.3)		주위의 신생아 돌보기 관찰경험여부	있음	24(58.5)		9(60.0)		0.01	1.00	없음	17(41.5)		6(40.0)		첫한달동안 조력자	있음	41(100)		15(100)		0.00	1.00	산후 조력자	친정어머니	25(61.0)		5(33.3)				시어머니	5(12.2)		3(20.0)		산후조리도우미	0(0)		2(13.3)		남편	5(12.2)		1(6.7)		기타 친인척	6(14.6)		4(26.7)																																																																																																			
산후교육	받았음	5(12.2)		1(6.7)		0.01	1.00																																																																																																																																																																																																							
	안받았음	36(87.8)		14(93.3)				원하는 임신여부	원함	37(90.2)		8(53.3)		7.29*	.01	원하지 않음	4(9.8)		7(46.7)		계획된 임신여부	계획함	30(73.2)		7(46.7)		2.36	.11	계획하지 않음	11(26.8)		8(53.3)		태교여부	했음	34(82.9)		10(66.7)		0.89	.27	안했음	7(17.1)		5(33.3)		주위의 신생아 돌보기 관찰경험여부	있음	24(58.5)		9(60.0)		0.01	1.00	없음	17(41.5)		6(40.0)		첫한달동안 조력자	있음	41(100)		15(100)		0.00	1.00	산후 조력자	친정어머니	25(61.0)		5(33.3)				시어머니	5(12.2)		3(20.0)			산후조리도우미	0(0)		2(13.3)				남편	5(12.2)		1(6.7)		기타 친인척	6(14.6)		4(26.7)																																																																																																													
원하는 임신여부	원함	37(90.2)		8(53.3)		7.29*	.01																																																																																																																																																																																																							
	원하지 않음	4(9.8)		7(46.7)				계획된 임신여부	계획함	30(73.2)		7(46.7)		2.36	.11	계획하지 않음	11(26.8)		8(53.3)		태교여부	했음	34(82.9)		10(66.7)		0.89	.27	안했음	7(17.1)		5(33.3)		주위의 신생아 돌보기 관찰경험여부	있음	24(58.5)		9(60.0)		0.01	1.00	없음	17(41.5)		6(40.0)		첫한달동안 조력자	있음	41(100)		15(100)		0.00	1.00	산후 조력자	친정어머니	25(61.0)		5(33.3)				시어머니	5(12.2)		3(20.0)			산후조리도우미	0(0)		2(13.3)				남편	5(12.2)		1(6.7)			기타 친인척	6(14.6)		4(26.7)																																																																																																																									
계획된 임신여부	계획함	30(73.2)		7(46.7)		2.36	.11																																																																																																																																																																																																							
	계획하지 않음	11(26.8)		8(53.3)				태교여부	했음	34(82.9)		10(66.7)		0.89	.27	안했음	7(17.1)		5(33.3)		주위의 신생아 돌보기 관찰경험여부	있음	24(58.5)		9(60.0)		0.01	1.00	없음	17(41.5)		6(40.0)		첫한달동안 조력자	있음	41(100)		15(100)		0.00	1.00	산후 조력자	친정어머니	25(61.0)		5(33.3)				시어머니	5(12.2)		3(20.0)			산후조리도우미	0(0)		2(13.3)				남편	5(12.2)		1(6.7)			기타 친인척	6(14.6)		4(26.7)																																																																																																																																						
태교여부	했음	34(82.9)		10(66.7)		0.89	.27																																																																																																																																																																																																							
	안했음	7(17.1)		5(33.3)				주위의 신생아 돌보기 관찰경험여부	있음	24(58.5)		9(60.0)		0.01	1.00	없음	17(41.5)		6(40.0)		첫한달동안 조력자	있음	41(100)		15(100)		0.00	1.00	산후 조력자	친정어머니	25(61.0)		5(33.3)				시어머니	5(12.2)		3(20.0)			산후조리도우미	0(0)		2(13.3)				남편	5(12.2)		1(6.7)			기타 친인척	6(14.6)		4(26.7)																																																																																																																																																			
주위의 신생아 돌보기 관찰경험여부	있음	24(58.5)		9(60.0)		0.01	1.00																																																																																																																																																																																																							
	없음	17(41.5)		6(40.0)				첫한달동안 조력자	있음	41(100)		15(100)		0.00	1.00	산후 조력자	친정어머니	25(61.0)		5(33.3)				시어머니	5(12.2)		3(20.0)			산후조리도우미	0(0)		2(13.3)				남편	5(12.2)		1(6.7)			기타 친인척	6(14.6)		4(26.7)																																																																																																																																																																
첫한달동안 조력자	있음	41(100)		15(100)		0.00	1.00																																																																																																																																																																																																							
산후 조력자	친정어머니	25(61.0)		5(33.3)																																																																																																																																																																																																										
	시어머니	5(12.2)		3(20.0)																																																																																																																																																																																																										
	산후조리도우미	0(0)		2(13.3)																																																																																																																																																																																																										
	남편	5(12.2)		1(6.7)																																																																																																																																																																																																										
	기타 친인척	6(14.6)		4(26.7)																																																																																																																																																																																																										

2. 가설검정결과

“자가간호향상을 위한 가정간호를 제공받은 조기퇴원군 제왕절개산모의 자가간호 능력정도는 정상퇴원군 제왕절개산모의 자가간호 능력정도보다 높을 것이다.”의 검정

정상퇴원군과 조기퇴원군의 자가간호능력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자가간호향상을 위한 가정간호를 제공받은 조

기퇴원군 제왕절개산모의 자가간호 능력정도는 정상퇴원군 제왕절개산모의 자가간호 능력정도보다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t=2.36, P<.02$ ).

정상 퇴원한 산모와 조기퇴원한 산모의 자가간호 능력을 측정 한 결과 문항 상 '항상 아니다'는 1점부터 '항상 그렇다'는 4점으로 하여 가능점수범위는 26점에서 104점까지로 실험군의 평균은  $91.0\pm5.33$ 이었고, 대조군의 평균이  $86.4\pm6.78$ 로 두 평균간에는 유의한 차이( $t=$

〈표 2〉 실험군과 대조군의 항목별 자가간호능력 차이

영역	내 용	실험군(n=15)	대조군(n=41)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복부 상처 관리	손을 대지 않는다	3.87±0.35	3.63±0.66	@1.69	.10
	깨끗하게 유지한다	4.00±0.00	3.93±0.26	@1.78	.08
	건조하게 유지한다	3.73±0.59	3.83±0.44	0.66	.52
	소 계	11.60±0.74	11.39±0.95	0.78	.44
수유	아기가 먹고 싶어할 때 먹인다(우유·모유)	3.67±0.49	3.39±0.77	1.29	.20
	수유전 손을 깨끗이 씻는다(우유·모유)	3.80±0.41	3.71±0.68	0.49	.62
	젖꼭지를 맞사지한 후 젖을 물린다(모유)				
	일정한 온도로 먹인다(우유)	3.60±0.63	3.41±0.81	0.80	.43
	수유시 젖꼭지는 물론 젖무리까지 아기에 물린다(모유)				
	우유병을 45° 정도 기울인다(우유)	3.60±0.63	3.27±0.59	1.82	.07
	젖먹일 때 자세가 편안하다(우유·모유)	3.20±1.01	2.93±0.91	0.97	.34
수유후 아기트림을 시킨다(우유·모유)	3.47±0.74	3.39±0.86	0.30	.76	
소 계	21.33±1.99	20.10±2.00	2.05*	.045	
위생 관리	부드럽게 양치한다	3.67±0.49	3.27±0.87	@2.15*	.04
	따뜻한 소금물로 행구어낸다	1.20±0.41	1.10±0.49	0.72	.48
	땀이 나면 샤워한다	2.60±1.18	2.22±0.96	1.23	.22
	땀이 나면 머리를 감는다	3.13±1.06	2.71±0.87	1.53	.13
소 계	10.60±2.23	9.29±1.94	2.15*	.04	
아기 목욕	실내온도를 25-27℃정도 따뜻하게 유지한다	3.47±0.92	3.73±0.71	1.15	.26
	5-10분이내에 목욕시킨다	3.27±0.96	3.63±0.83	1.41	.17
	팔꿈치가 떠끈한 정도의 목욕물로 아기를 목욕시킨다	3.53±0.92	3.15±1.20	@1.29	.21
	얼굴-머리-목-몸통-하지의 순서로 씻긴다	3.53±0.92	3.17±1.18	1.21	.24
소 계	13.80±3.55	13.68±2.94	0.13	.90	
배꼽 관리	목욕후 배꼽은 건조시킨다	3.93±0.26	3.63±0.73	@2.26*	.03
배설 관리	기저귀가 젖으면 바로 갈아준다	3.87±0.35	3.80±0.60	0.37	.71
	생식기를 닦아줄 때 앞에서 뒤로 닦는다	3.60±0.74	3.17±1.14	@1.65	.11
	소 계	7.47±0.74	6.98±1.42	1.27	.21
오로 관리	패드교환후 손을 씻는다	3.87±0.35	3.95±0.31	0.87	.39
	생리대를 빼거나 착용할때는 항상 앞에서 뒤로 한다	3.07±0.88	2.76±1.26	@1.03	.31
	소 계	6.93±0.88	6.71±1.33	@0.73	.47
한냉 관리	의복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한다	3.80±0.41	3.37±0.89	@2.48*	.02
	찬물이나 추운곳을 피한다	3.87±0.35	3.68±0.57	@1.45	.16
	소 계	7.67±0.72	7.05±1.18	@2.35*	.02
영양 관리	산후회복을 돕는 음식을 먹는다	3.67±0.62	3.80±0.56	0.80	.43
	찬음식, 자극적인 음식, 딱딱한 음식을 피한다	4.00±0.00	3.78±0.61	@2.29*	.03
	소 계	7.67±0.62	7.59±1.07	0.28	.78
전체		91.0±5.33	86.41±6.78	2.36*	.02

@ Levene의 등분산 검정후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값이다.



2.36,  $p \leq .05$ )를 보여 조기퇴원 후 가정간호를 제공받은 산모의 자가간호능력이 높게 나타났다(표 2).

자가간호 능력의 영역마다 비교한 결과 수유( $t=2.053$ ,  $p \leq .05$ ), 위생관리( $t=2.146$ ,  $p \leq .05$ ), 배꼽관리( $t=2.258$ ,  $p \leq .05$ ), 한냉관리( $t=2.352$ ,  $p \leq .05$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인 항목들을 비교한 결과 위생관리영역에서 '부드럽게 양치한다'( $t=2.154$ ,  $p \leq .05$ ), 배꼽관리영역에서 '목욕 후 배꼽을 건조시킨다'( $t=2.258$ ,  $p \leq .05$ ), 영양관리영역에서 '찬 음식, 자극적인 음식, 딱딱한 음식을 피한다'( $t=2.293$ ,  $p \leq .05$ )의 항목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자가간호능력 측정치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복부상처관리 영역에서는 '손을 대지 않는다', '깨끗하게 유지한다', '건조하게 유지한다' 항목, 수유영역에서 모든 항목, 위생관리영역에서 '따뜻한 소금물로 행구어 낸다', '땀이 나면 샤워한다', '땀이 나면 머리를 감는다' 항목, 아기목욕영역에서 '팔꿈치가 딱딱한 정도의 목욕물로 아기를 목욕시킨다'와 '얼굴-머리-목-몸통-하지 순서로 씻긴다' 항목, 배설관리영역에서 두 항목, 오로관리에서 '생리대를 빼거나 착용할 때는 항상 앞에서 뒤로 한다' 항목, 한냉관리에서 '찬물이나 추운 곳을 피한다' 항목 등에서 실험군의 평균이 대조군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에 대조군의 평균이 실험군보다 높았던 항목은 아기목욕영역에서 '실내온도를 25-27°C 정도로 따뜻하게 유지한다'와 '5-10분 이내에 목욕시킨다' 항목, 오로관리에서는 '패드교환 후 손을 씻는다' 항목 등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논 의

### 1. 자가간호향상을 위한 가정간호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조기퇴원하여 가정간호를 받은 제왕절개 산모군의 자가간호 능력이 대조군보다 높음이 검정되었다. 박경숙(1994)이 산모를 대상으로 가정간호 효과를 검정한 연구에서는 수술 후 5, 6, 7일의 신체, 생리 회복정도, 합병증 발생빈도, 일상생활 활동능력 정도, 간호에 대한 만족도가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높았다고 보고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산모들이 요구하는 자가건강관리 교육요구로서 지적된(장순복 등, 1999) 자신

의 신생아 자가간호 능력향상을 위한 시도는 포함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두 군의 퇴원 이후 기간에 가정에서 독자적으로 자가 간호해야만 되는 상황과 시기에 실시하고 난 후에 측정했으므로 가정간호 교육의 효과를 산육기간에 자가간호 능력의 정도로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가간호 능력차이 규명 연구는 이전의 제왕절개술 산모의 연구보다 조금 전진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본다. 제왕절개산모 가정간호에 자가간호가 포괄되어야 할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산모를 위한 가정간호의 궁극적인 간호목표는 자가간호능력 향상에 있다. 이는 산모는 출산 이후에 자신의 생리심리적 회복의 과정이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산모자신을 위한 자가관리 능력이 부족하면 신체적으로는 감염, 생식기 복구부전, 수유장애 등을 경험하게 되고, 신생아를 위해서는 성장부전, 감염, 상해 등을 겪지 않도록 도와야 하므로 필수적이다(최연순, 1999). 병원에서 제왕절개 산모의 치료가 완성되어 수술 후 7-8일에 퇴원한다 하여도 그들의 교육적 요구가 큰 것을(장순복, 1996) 볼 때에 산모에게 필요한 자가간호 교육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방법상의 제한점이 있을 수 있음이 추정된다. 가정간호에서는 가정간호수가 대상으로 여겨지던 수술부위의 봉합사 제거와 전신건강 사정 이외에 자가간호 교육이 보다 구체적으로 실시된다면 실제로 산모에게서 자가간호 능력으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들이 포괄되고 어떻게 제공되어야 할 것인가? 제공되어야 할 내용으로 Mattson & Smith(1992)는 산모의 자가간호 교육내용으로 위생관리, 회음관리, 운동, 영양, 유방관리, 신생아 특성이해, 신생아 행동특성, 신생아 돌보기, 신생아 달래기 등을, 최연순 등은(1999) 산후 1주일 후 가정간호로는 휴식도모, 신체적 회복, 신생아 돌보기, 신생아 특성이해, 신생아와 관계수립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정현(1999)은 산후조리원에 있는 산모들은 분만한 이후 퇴원하여 기거하고 있는 가정대체 장소로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동안 그들이 표현한 간호요구로는 젖먹을 풀기와 젖짜기, 회음절개부위 소독, 좌욕, 몸의 청결, 산육체조, 충분한 휴식과 수면, 아기와의 접촉, 정보제공, 성생활 상담, 피임교육, 육아교육, 청결관리, 습도, 온도유지 방법, 신생아 배꼽관리, 신생아 감염관리, 신생아 목욕, 신생아 정서적 안정 등이라고 제시

하였다. 나아가 황보수자(1999)는 조기퇴원한 제왕절개 산욕부를 위한 가정간호 표준서를 개발하면서 불안감소, 신생아 간호, 애착증진, 모유수유, 인공수유, 감염예방, 산후간호건강교육, 환경관리, 영양관리, 통증관리, 투약, 부모교육, 부모역할 강화, 피부간호, 배변관리, 신체이미지 강화, 이완요법 등 19가지 중재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산모의 가정간호에 포괄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산모의 회음관리, 한냉관리, 영양관리, 수유관리, 위생관리, 성생활 적응, 가족계획, 감염예방, 운동, 부모 역할과, 신생아의 체대관리, 배설관리, 목욕, 행위사정, 돌보기 등이 포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초기 실험연구로서 제한된 인적 시간적 자원으로 우선적인 가정간호 서비스를 산모관련 회음관리, 위생관리, 한냉관리, 영양관리, 수유관리 등과 신생아 관련 배설관리, 체대관리, 아기목욕 등에 국한하였다. 이는 우선적으로 병원간호에서도 보다 강화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봄과 동시에 조기퇴원 후 제왕절개산모들의 자가간호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간호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정형화된 가정간호로 개발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앞으로의 가정간호에는 상기의 모든 것을 포괄하기 위하여 인적 경제적 지원이 되는 수준에서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서비스 비용이 국가의 건강보험에서 지불될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미 연구에서 포괄된 것 이외에는 건강보험 이외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상품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는 기존의 가정간호의 품질을 개선하는 길이며 독자적인 간호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 책무성의 이행이며 동시에 새로운 건강상품의 구매수요의 창출이라고 예견되기 때문이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왕절개 수술 후 조기퇴원한 산모에게 자가간호 향상을 위한 가정간호를 제공한 후 산모의 자가간호 능력 정도를 정상퇴원한 산모와 비교함으로써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서울시내에 S의료원에서 제왕절개술을 받은 산모를 임의추출하여 연구선정기준에 합당한 조기퇴원한 산모 15명과 정상퇴원한 산모 41명, 총 5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1998년 12월 20일에서 6월 10일까지였다.

자료수집은 정상퇴원 산모의 경우 퇴원 후 1-2일에,

본 연구팀이 산모의 가정간호 요구도를 조사한 이전 연구를 기초로 개발한 9개 영역의 25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가간호 능력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전화상담을 통해 자가간호 능력정도를 측정하였고, 조기퇴원한 산모는 퇴원 후 1-2일에 가정간호사가 직접 가정간호를 제공한 후 1-2일에 자가간호 능력정도를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t-test,  $\chi^2$ -test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상퇴원군(대조군)과 조기퇴원군(실험군)의 일반적 특성에서 정상퇴원군과 조기퇴원군의 동질성 검증 결과 임신횟수( $t=2.06$ ,  $p \leq .05$ )와 원하는 임신 여부( $\chi^2=7.29$ ,  $p \leq .05$ )를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없었다.

정상 퇴원군(대조군)과 조기퇴원군(실험군)의 자가간호능력 차이에서 정상퇴원군과 조기퇴원군을 대상으로 산모관련 복부상처관리, 수유관리, 위생관리, 오로관리, 한냉관리, 영양관리와 신생아 관련 아기목욕, 배꼽관리, 배설관리를 포함한 9개 영역, 28문항에 대한 총 점수를 비교했을 때 실험군의 평균은  $91.0 \pm 5.33$ , 대조군의 평균은  $86.4 \pm 6.78$ 로 두 그룹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t=2.36$ ,  $p \leq .05$ )를 보여서, 결과적으로 조기퇴원 후 가정간호를 제공받은 산모의 자가간호능력이 정상퇴원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가정간호를 받은 조기퇴원군의 자가간호능력이 정상퇴원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30분의 부가적인 자가간호향상을 위한 가정간호는 조기퇴원군 제왕절개산모의 자가간호능력을 향상시키는 간호중재로서의 가능성이 입증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병동간호에서 받은 자가간호 교육내용과 가정간호에서 받은 자가간호 교육내용에 대한 비교연구가 요구된다.
2. 대상자집단을 확대하여 비교 확인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김모임, 김의숙, 유효신, 추수경, 이규식, 이종길 (1993). 입원환자의 가정간호 의뢰일 추정과 진료비 분석에 관한 연구. 간호학 탐구, 2(1), 151-178.
- 김승권 (2000). 자가간호 향상을 위한 제왕절개 산모의

- 가정간호 효과.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 암 (1998). 제왕절개술 빈도의 변화 양상. 대한산부인과회지, 41(3), 647-652.
- 김혜숙, 최연순, 전은미 (1994). 제왕절개분만 산욕부와 신생아의 가정간호 사례분석. 대한간호학회지, 24(4), 696-705.
- 박경숙 (1994). 조기퇴원 수술환자의 병원중심 가정간호 효과 및 비용분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정환 (1999). 우리나라 여성과 어린이 보건의 현황과 보건정책 및 사업방향. 여성과 어린이 건강정책 방향 및 여성건강간호학 학습목표 하계학술대회. 성프란치스코 회관, 7, 29, 2-10.
- 신혜숙, 김승희, 권숙희 (2000). 초산모를 위한 산후간호 교육과 효과. 여성건강학회지, 6(1), 34-45
- 이규식 (1993). 비용효과분석. 간호학 탐구, 2(1), 39-44.
- 이은숙 (1986).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수유시 모아 상호작용 민감성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순복, 최연순, 박소미, 박정숙, 김은숙 (1999). 산후 6개월간 산모와 신생아의 가정간호 요구. 대한간호학회지, 29(3), 507-517.
- 전은미 (1993). 산욕부와 신생아의 가정간호 사례연구.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경희, 장금성 (1998). 제왕절개술 환자를 위한 Critical Pathway 개발. 한국간호교육학회지, 4(1), 66-80.
- 정영희 (1984). 산욕부의 건강지각에 따른 산후 신체적 자기간호 실천정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 현 (1999).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의 간호요구 및 만족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연순, 김대현, 서미혜, 김조자, 강규숙 (1992). 퇴원 환자의 가정간호요구와 가정간호사업의 효과분석 - 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대한간호, 31(4), 77-99.
- 최연순, 장춘자, 조희숙, 최양자, 장순복, 박영숙, 이남희, 조동숙, 이은희 (1999). 여성건강간호학I(제 4판). 서울: 수문사.
- 최연순, 조동숙 (1984). 산욕부의 자기간호 실천정도에 관한 연구. 간호학논집, 7, 86-105.
- 황나미 (1996). 병원중심 가정간호시범사업 평가.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황보선 (1996). 가정간호학. 서울: 정담출판사.
- 황보수자 (1999). 조기퇴원 제왕절개 산욕부를 위한 가정간호 표준서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 Armstrong, M. (1989). Orchestrating the process of patients education method & approach.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24(3), 592-611.
- Bennett, S.J., Cordes, D K., Westmoreland, G. Castro, R., & Donnelly, E. (2000). Self-care strategies for symptom management in patients with chronic heart failure. Nursing Research, 49(3), 139-145.
- Chu, L.Y., & Ten, S.W. (1997). Behavior change of a primipara with cesarean section during early postpartum period. Journal of Nursing(china), 44(3), 25-31.
- Griffith, E. (1984). Home Care Today. American Journal of Nursing, 84(3), 340-345.
- Gruis, M. (1977). Beyond Maternity Postpartum concerns of mothers. American Journal of Maternity Child Nursing, May/June, 182
- Hill, L., & Smith, N. (1985). Self Care Nursing. Norwalk, Conn, Appleton-Century-Crofts.
- Holmberg, S.K., & Kane, C. (1999). Health and self-care practices of persons with schizophrenia. Psychiatric Services, 50(6), 827-829.
- Keppler, A.B. (1995). Postpartum care center follow up care in a hospital based clinic. Journal of Neonatal Nursing Obstetric Gynecologic Neonatal Nursing, 24(1), 17-21.
- Mattson, S., & Smith, J. (1992). Care Curriculum for Maternal-Newborn Nursing. Philadelphia, W.B. Saunders.
- Orem, D E. (1985). Nursing : Concepts of practice. 2nd Ed., New York Mcgrow Hill Book Co.

Rubin, R. (1975). Maternity Nursing stops too soon. American Journal of Nursing, Oct., 1680-1684.

Shakur, H., & Higham, M. (1998). Review : self management education for adults with asthma improves health outcomes. Evidence-Based Nursing, 1(4), 117.

Toobert, D.J., Hampson, S.E., & Glasgow, R.E. (2000). The Summary of Diabetes Self-Care Activities measure : results from 7 studies and a revised scale. Diabetes Care, 23(7), 943-950.

Weiss, R. (1995). Promoting self-care. Health Progress, 76(7), 74-75. 81.

Williams, L.R., & Cooper, M.K. (1993). Nurse managed postpartum home care.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 Neonatal Nursing, 22(1), 25-31.

Winslow, E.H. (1976). The role of the nurses in patient education.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11(2), 213-222.

Yankauer, A. (1960). What mothers say about childbearing and parents classes. Nursing Outlook, Oct., 563-565.

- Abstract -

Key concept : Cesarean section, Parturient women, Home nursing care, Self-care competency

### Effects of Home Nursing Care on Self Care for Early Discharged Mothers Following a Cesarean Section\*

*Chang, Soon-Bok\*\* · Lee, Sun-K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self care focused home nursing care outcomes of parturient women following Cesarean sections. The subjects included 56 parturient women following a cesarean section, and they were randomly assigned to an experimental group or a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included women who were discharged early from the hospital, 4-5 days after having a cesarean section. Home nursing care for the experimental group consisted of stitch removal, wound care and education for parturient women. Home nursing care was provided for 2-3 days after early discharge. The outcomes of self care focused home nursing care were measured by self-care competency. Data collection was done by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and by a telephone interview 2-3 days after discharge from the hospital(control) or after home care (experimental) from December, 20, 1998 to June, 10, 1999.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25 items on 9 self-care domains. Data was analyzed by a t-test, and as  $\chi^2$ -test.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both groups were similar except for the total number of pregnancies, and whether or not they wanted the pregnancy at this time.
2. The self-care competency scores for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ing self care focused home nursing care were higher than the scores for the control group( $t=2.361$ ,  $p \leq .05$ ).
3.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ate of OPD visiting, readmission, or emergency room use between the two groups.

We concluded that self care focused home nursing care is effective in promoting the self-care competency of parturient women following Cesarean sections.

It is suggested that further study is needed with a larger sample to be able to generalize these result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grant No 981-0715-113-1 from the Basic Research program of the KOSEF

\*\*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Home Health Care

\*\*\*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